

로버트 야브리 박사, 요한서신, 세션 2B - 요한 1서, 2서, 3서의 신학적 주제

로버트 야브리 박사님의 요한 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균형" 강의입니다. 이번 세션은 2B 세션으로, 요한일서, 이서, 삼서의 신학적 주제들을 다룹니다.

요한 서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며, "요한 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에 나타난 신학적 주제를 살펴보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주제들을 맨 위, 즉 제목에 계속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앎을 주요 신학적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단어는 요한 서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나는 사랑한다'는 동사가, 그리고 세 번째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동사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메노(meno)'입니다. '나는 머무른다' 또는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일서에 24번, 요한이서에 3번 나옵니다. 우리는 요한이 한편으로는 신실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방종한 자들, 즉 피를 흘리지 않는 종교를 가진 자들, 즉 신앙 때문에 죽음을 요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만 바꿔서 모든 내용을 한 페이지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것"이라는 제목 아래, 죽어가는 신실한 자들에게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그분의 살아 계신 임재를 붙여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우리를 구원하지만, 그 후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 살아 계신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아들과 아버지께 가까이 붙들어 줍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곧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물론, 여러분이 듣는 것은 메시지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말씀에 마음을 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됩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나 복음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의 신분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그들을 주님과 하나 되게 하고, 기독교 공동체를 말살하거나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면, 그들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됩니다.

좀 신비롭긴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의 이해와 지식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방정식이나 거대한 우주적 존재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원하고 초월적인 존재이시라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한하고, 피조물이며, 심지어 죄성까지도 말씀을 통해 깨끗해지고, 그 말씀은 거하며 그 역할을 다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게 죽어가는 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느슨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 곧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가 결여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그러한 이탈이 그리스도의 교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요한은 요한2서 9절에서 한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앞지르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느니라.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목하십시오.

거하느냐 안 하느냐는 느슨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력이 너무 느슨하다는 것을 아시죠. 너무 게으릅니다.

평범함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시다시피, 그분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봉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커지고, 사랑이 더욱 깊어지도록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리고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누리는 선하고 위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2서를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장이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곳,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에 충실하고, 그분과 함께 삶 속에서 동행하며 그 관계와 섬김, 그리고 예배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코스모스, 즉 세상, 혹은 창조된 질서입니다.

요한일서에 이 단어가 23번 나옵니다. 신실하게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이 단어의 메시지는 세상, 세상이 영원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매우 엄중하고 무자비할 수 있습니다.

동정심은 전혀 없어요. 제가 가장 강하게 박해받는 나라를 떠올려 보면, 수단이 떠오릅니다. 거기서 여러 달을 보냈거든요. 거기는 종종 엄청 덥고,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그곳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깨끗한 물조차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다면, 마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보다 큼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라면 더욱 힘들고 우울할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취업 기회도, 교육 기회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대학에 가는데, 당신은 주류 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대학에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영원해 보일 수 있지만, 요한의 메시지는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분께 경의를 표하는 자들은 그분의 변치 않는 임재 안에서 생명을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며, 인간의 열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은 목표로 삼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적대감을 예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신실함에 갚아 주실 것이며, 세상의 반대에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 욕망과 함께 사라지고 있으며, 그 단어는 종종 성적 욕망을 향해 움직입니다. 반드시 그것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곳에서, 삶의 많은 부분, 많은 에너지가 감각적 쾌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섹스'라는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시다시피, 그것이 삶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죠. 요한은 세상도 그 정욕과 함께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오셨고, 말씀을 통해 세상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초월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간, 시간, 물질 너머에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세상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 나름의 방향과 갈망,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지금도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의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온갖 방식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 중 하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실하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관련하여,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있으며, 창조 질서의 적대감을 예상해야 합니다. 방탕한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세상이 종교적 대체물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영들, 이러한 충동들, 이러한 확신들, 이러한 믿음들을 그들에게 주고, 이러한 영들과 그들의 선지자들에게 귀 기울여 듣게 합니다. 여러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 지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많이 조회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종교적 대용품이나 종교적 허위 진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한일서 4:1,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을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할 생각과 충동과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확신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은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고, 세상에서 그들의 위치를 변화시킵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 있고,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음, 세상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요한일서는 상충하는 세상이라는 신학적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 서신에서 또 다른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자 단어는 '아들'입니다. 이 단어는 22회 등장합니다.

ESV에서는 항상 대문자로 표기하는데, 이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서신에서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주요 단어는 '아들'입니다. 신실하게 죽어가는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의 확신을 가져다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항상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단지 미래의 영원, 즉 삶의 지속에 대한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놀라운 진리이지만, 요한복음에서 영생이 제시되는 방식은 단순히 종말론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종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깨달은 바, 즉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삶의 질은 지금 여기 변화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영생을 누리기 위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열매는 이미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으며, 아들을 믿는 것은 그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시작되는 이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증거, 곧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은 다가올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삶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몇 구절 뒤인 5장 2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압니다." 여기서 지식을 뜻하는 단어는 흔치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셔서 참되신 그분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 단어를 "이해"로 번역하실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이건 잔디 깎는 기계를 어떻게 조립하는지, 핑크 난 타이어를 어떻게 고치는지와 같은 흔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내면의 통찰력입니다. 우리가 참되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참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들에 대한 메시지는 22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신자들을 위한 메시지는 죽음의 위협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제 삶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삶이 위태로워졌고, 아들이 영생의 확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아들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분도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들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구원하는 믿음, 즉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특정 종교적 사상에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률을 준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는 신을 믿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같은 말어요. 그런 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적인 현현으로 거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사상에 동의하거나, 도덕률을 따르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만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심지어 적대감까지 느낍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지위를 적대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겠습니까? 이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2: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물론, 그가 아들을 부인한다고 말할 때, 그는 예수님의 충만함, 곧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 곧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함께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암 환자를

치유하는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은 여러 해 동안 여러 번 교회에 다녔고, 치유의 은사를 받았으며, 전국 각지를 다니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정말 따뜻하고, 그 사람이 암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몇 년 다니다가 쫓겨났는데,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생이었고,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게 길고 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가 그런 은사를 가졌음에도 사람들이 그를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게 교회에서 학대받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어요. 제 치유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이 문제의 핵심을 파헤쳐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계속 오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했더니,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즉 영원히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로우시고, 한 분이시며, 의로운 분이시며, 불의한 자와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그에게 인용하며 "그게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변하며 "성경에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이 문제가 대화에 드러나자 오히려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의 치유 능력에 대한 간증을 듣는 동안만 해도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죽으신 아들의 관점에서 정의되었을 때, 그것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은 경찰관이셨고, 경찰관이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은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느슨한 사람들을 위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들을 시인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없고, 하나님의 빛과 선하심이 없으면 어둠과 어둠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며,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요한일서에 18회, 요한이서에 2회, 요한삼서에 1회 등장합니다. 이는 죽어가는 신자들을 위한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짐에 따라,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건져 올려줍니다.

인류학자들은 보편적인 인간 경험은 죄책감이라고 말하며, 다양한 문화권마다 죄책감, 특히 죄책감을 부정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해 읽어보면, 저는 플라잉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읽습니다. 거기에는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한 기사가 자주 실려 있는데, 비행 영상을 녹화하고, 추락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발견하여 조종사가 사망 직전에 한 말을 분석합니다. 놀랍게도 조종사들의 마지막 말이 "뱌소사" 또는 "뱌소사"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자기, 종교가 전혀 없던 남자든 여자든 죽음의 순간이 오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심판받을 가능성,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방금 아들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확신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아들을 아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은 그분의 특징적인 속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인용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다'라는 단어는 '신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든지 그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가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함이니라.

그분이 그러하시듯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신에 차 계시고, 사랑이 충만하시며,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이 그러하시듯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면, 그렇지 않으면 겪을 수 있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신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신자들은,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체포되고, 수색을 받고, 집이 불타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박해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박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를 읽거나, 박해가 심한 지역에 살고 있다면, 순교자의 소리와 같은 웹사이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집을 잃은 사람들, 체포된 사람들, 고문당한 사람들의 간증을 종종 읽을 수 있으며, 그 간증은 종종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픔과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안다. 비록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만 말이다."라는 느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느슨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더라도, 우리의 사랑이 실제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외의 다른 것, 혹은 그 이상을 향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를 신약에서 되풀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흑백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3:16)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대한 애정과 확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당신의 애정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하나님과 아들에 대한 당신의 애정과 경쟁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궁극적인 의미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죄'는 요한의 서신, 곧 첫째 서신에서 17번이나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단어입니다. 죽어가는 신자들을 위한 그의

메시지는 믿는 자들이 죄 사함을 알기에 소망을 품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채우기 위해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힘을 줍니다. 요한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귄이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 평범한 지성,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을 알고 있거든요. 반려동물도 사랑을 알고 있죠. 개도 사랑하고, 고양이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하고, 서로도 사랑하고, 모두가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여기에는 방종한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 죄를 짓고, 언제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죄를 줄이기 위해 나타나셨지, 끝없는 관용으로 죄를 부추기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4절과 5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이 구절들과 말씀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여기서 불법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노미아' (anomia)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마스는 법이고, 아노미아는 법이 아닙니다. 이는 아마도 구약 시대의 토라나 노모스 개념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선을 넘었을 때

수백 번이나 아노미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범할 수 있는 죄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수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노미아(무법 상태)라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반역하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고,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가 무한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더라도, 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저를 계속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위험한 게임이죠. 영어로는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길에서 서로 마주 보고 운전할 때 누가 먼저 비켜주는지 보면, 신에게 치킨 게임을 하듯 "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계속 죄를 지을 겁니다. 당신을 믿고, 당신은 저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 믿음은 진정한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오'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단어는 '기노스코'로, 세 번째로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이다(oida)로, 빈도가 9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관련하여, 죽어가는 신실한 이들을 위한 요한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우리 주님과 구세주의 재림이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분을 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에 찬 기대는 시련과 상실의 시간 속에서 믿는 자들을 지탱해 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요한 서신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어떤 번역은 '친구들'을 의미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요구를 나타냅니다.

'선택'이라는 단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한 백성에게 애정을 두시는데,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형제자매가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적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도자인 요한은 사랑하는 이에게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물론 그도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더 경험적인 초기 단어인 기노스코(ginosk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이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을 것이라는 분명한 생각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중재 없이도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으로 옮겨갈 때, 그것은 마법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아시다시피, 감춰진 영광을 봅니다.

구름 사이로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태양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보여요.

우리는 사랑을 봅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으며, 이 메시지는 죽어가는 신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되어 그분처럼 될 때까지 당신을 지켜줄 확신을 품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주는 메시지이자,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징은 다른 사람을 향한 뜨겁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나타나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같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동일한 확신, 동일한 수준, 동일한 질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험을 관찰하는 것보다 더 깊은 확신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와 실체에 대한 확신이며,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되돌아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꽤 나이가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교회와 여러 곳을 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안에 거합니다. 그들은 그 지식이 없으며, 그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 번째, 열두 번째 단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열 번째 단어, '들음'입니다. 제가 열네 번이나 듣는 동사입니다. 죽어가는 신실한 자들에게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그분의 능력과 목적에 따라 가장 좋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바로 위험입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그분을 향한 우리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지만, 이것이 바로 말씀,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능력과 목적에 따라 가장 좋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께 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며, 하고 싶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 아래 기도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것이 중요한가?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고양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손가락을 튕겨서 원하는 대로 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치시고, 기도를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에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미루고 잠시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힘쓰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이 게으른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뜻을 기꺼이 따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며 윤리적 기준을 낮추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이서 6장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대로, 여러분은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계명은 물론, 14번이나 반복되며, 신실한 죽음을 앞둔 이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면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학대와 체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산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곧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압니다.

이는 그리스도께 충실하지만 그 대가로 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위한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배우고 그분이 명하신 것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의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법을 배울 때, 그 계명들은 짐스럽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누군가에게 지키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하거나 부족하다는 표시입니다. 요한일서 2:4, 누구든지 그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5:3,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짐이 아니니라.

그러니 계명이 그렇게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 다소 놀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무관심하거나, "사랑은 크지만 계명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느슨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백성이 따라야 할 가르침과 인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파테르(pater)"로 14회 등장합니다.

13번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합니다. 요한일서에는 네 번, 요한이서에는 네 번 나타납니다. 신실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혹은 신실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을 위한 요한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의 사랑의 위대함과 위대함을 나타내며,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에 대한 확고함과 신성한 보호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것을 이해하고 예상합니다. 세상은 아버지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만큼 우리는 참으로 그러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에 대한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단순히 은혜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개인적인 연합의 차원에서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죽어가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인간의 적대감에서 비롯된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적대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적대감과 때로는 질투, 그리고 복수심에 대한 충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가 게으른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은 세상을 향한 사랑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들을 세상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의 보물로 아들을 고백한다면, 바로 이것이 아버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서 스스로를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전에도 읽었지만, 이 강의를 이 구절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만약 우리가 죽어가는 교회 환경에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게으른 자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신시켜 주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 안으로 다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로버트 야브리 박사가 요한 서신에 대해 가르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균형"입니다. 이 세션은 2B 세션, 요한일서, 이서, 삼서의 신학적 주제입니다.